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들

Matt Taylor Lt.

“본 자료는

미 디트로이트 경찰 폭발물 처리반의 책임자인

Matt Taylor 부서장의 글을 협회에서 편집한 내용임.

각급부대 EOD 요원들이 통합훈련이나

관련기관 교육지원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EOD 임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급 대원과 시민들이 의심스러운 소포, 폭약, 또는 무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저자는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폭발물과 폭약 위협에 대한 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에서, 순찰 중인 경관들이 실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더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작업을 중지하고 물러나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결정에 대하여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공동체로부터 받은 질문들은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회 공동체 요원들이 위협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고 쓰고 있다.

폭발물 처리반과 디트로이트 경찰국은 폭발물뿐만 아니라 테러 같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경각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해왔다. 단순히 조직이 “이것은 우선 순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결정권자가 모든 구성원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예산을 짜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EOD에서는 교육 아카데미를 통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재인증 훈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폭발물과 폭약 위협에 대한 2시간짜리 인식 훈련 과정을 개설하였고, 새로 승진한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비

슷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 결정권자들은 일부 사건들이 잘못 처리된 후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폭발물 처리반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이 과정은 구조원, 사설 보안 요원, 심지어 민간인을 위한 수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한 가지 예로, 디트로이트는 낡은 빈 건물들로 악명이 높으며 우리는 최근에 철거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건물을 정리할 때 종종 오래된 폭발물이나 다른 잠재적인 위협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모든 처리반은 고유한 임무, 책임 영역, 지휘 체계 및 다양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용능력을 잘 활용하여 필요한 인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단계적으로 교육하라.

훈련 프로그램이 규모가 작거나 혹은 아예 없는 경우, 처음부터 완벽한 훈련을 지향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라. 10분짜리 브리핑이나 심지어는 점심에 파트너와 대화하는 것처럼 간단한 훈련도 효과적일 수 있다.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의사 결정권자에게 신뢰를 주어 공식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라. 2~4시간의 기본교육을 시행하고, 심화과정으로 전체 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다.

2. 팀원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에서 동료들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라.

3.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가져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프레젠테이션을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지 마라. 교육받는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과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4.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진보된 지식을 가진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라. 교육인원에 따라 수준 이상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 만한 사람을 알고 있으니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5. 폭발물 처리 기술자로서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으

며 모든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조치를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지식을 제공하고 경험사례를 권고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식, 위험 관리 및 위협 평가에 대한 많은 결정은 우리 손에서 벗어난다. 비록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받은 인원들은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행동할 것임을 기억하라.

6.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전에, 먼저 스스로 훈련에 참여하라. 만약 연방 정부 관계자나 이웃 EOD팀이 진행하는 테러 또는 폭발물 관련 교육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교육 과정을 설정하는 법이나 정책 및 절차가 여전히 우수 사례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발표 기술과 무대 자신감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7. 참을성을 갖고 꾸준히 교육하라.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발전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교육훈련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람들은 경험담을 좋아한다. 특히 각자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다면 더 좋다. 9·11 테러와 같은 일반적인 언급 대신, 대규모 인명 사고가 아니더라도 본인이나 본인의 팀 또는 인접 처리반에서 경험한 사건 및 장치들에 대해 청중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라.

청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좋다. “장롱 속에서 할아버지의 전리품을 발견했다”라는 간단한 서두는 흔히들 하는 그럴 듯한 이력들을 그저 나열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좋은 인식과 대응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에선 보통 전쟁 이야기, 폭발물 신고, 폭발 후 조사, “의심스러웠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된 소포”, 전화 위협 등등이 있다. 보안에 위배 되지 않는 한 뉴스에 나온 유명 사건·사고를 언급하면, 이것이 이론적인 항목들보다 훨씬 더 청중들의 관심을 끌고 토론을 유발한다.

2. 관련기관(EOD, 경찰, 소방 등)이 협력하여 교육을 주최하라. 관련된 각 기관의 요원들이 참여하면 비록 한 사람이 대부분의 말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3. 짧게, 자주, 편안하게 진행하는 훈련 과정을 고려하라. 몇 시간 동안의 길고 지루한 프레젠테이션과 그 뒤에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은 지루할 뿐이다. 시간 설정은 긴 것보다 짧은 편이 낫다.

4. 미디어를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단지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 전부 아니다. 이는 다소 두려울 수도 있지만, 카메라 앞에서 대중 혹은 현장의 대응자들에게 교훈을 주기에 좋은 방법이다. 공익 광고와 YouTube 동영상도 대중들의 인식을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개인 정보 및 운영 보안을 잘 지켜야 한다.

5. 각종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식을 넓히는 방법도 있다. 어린이 날, 국군의 날, 기타 소규모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폭발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폭발물 처리반의 대응 차량을 주차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비를 전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비공식적인 좋은 훈련을 경험할 수 있다.

EOD 부대 및 요원들이 지역 사회에서 인지도를 쌓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폭발물 처리 기술자들이 임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최고 수준의 장비와 물자, 최신 로봇과 함께 훌륭한 폭발물 처리 기술을 갖추었더라도, 지역 대응자들과 시민들이 언제 전화를 해야 할지, 또는 그들이 뭔가를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른다면, 폭발물을 처리하기도 전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의 문화를 개선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폭발물 처리 기술 훈련 과정에서 배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 중 하나로서 개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앞으로 IABTI와 연결되어 있는 기관과 폭발물 처리 기술자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